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언어로 물드는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 성전스님 -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미국흉부학회(ATS) ‘유망한 신진 연구자’로 선정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2024년 7월의 유망한 신진 연구자(Emerging Investigator)로 선정됐다. 1905년 창립된 미국흉부 학회는 전 세계 133개국에서 1만 6천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 질환, 중환자 및 수면 관련 호흡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을 중점으로 활동하는 권위 있는 학회로 평가 받는다.

김진엽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부비동 CT 기반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 예측’ 논문이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IF: 19.3)에 이번 달 게재되었으며 이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망한 신진 연구자로 선정됐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유병률이 6~38%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표준검사 방법인 수면다원검사가 대기 시간이 길고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김진엽 교수 연구팀은 부비동 CT를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중증도 예측 정확도는 87.4%, 의미 있는 폐쇄성 무호흡증 예측 정확도는 91.0%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BRIC)에서 소개하는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등재됐다. 김진엽 교수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등재이다. 김진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을 통해 기존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의료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장내과 송정인 교수, 제22차 아시아·태평양 신장학 학술대회 & 제44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 수상



신장내과 송정인 교수가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 신장학 학술대회(APCN) & 제44차 대한신장학회(KSN)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송정인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에서 ‘단일 세포 전사체 (single cell RNA-sequencing) 및 공간 전사체 (spatial transcriptomics)’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기간 동안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자 안전을 위한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11일 권범선 병원장, 김진영 진료부원장, 고기환 사무국장, 박완임 간호부장을 비롯한 경영진 그룹이 참여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했다. 이 활동은 병원의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노력으로, 반기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번 워크라운드에서는 111병동, 112병동, 121병동, 당일 수술실,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계검사실, 심장기능검사실, 호흡기검사실, 재활치료실, 핵의학검사실을 방문했다. 경영진은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권범선 병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환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실시하여 환자 안전에 앞장서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이태현 임상병리사, ‘세계 헌혈자의 날’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수상

진단검사의학과 이태현 임상병리사가 지난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태현 임상병리사는 혈액은행실에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한 수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 혈액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태현 임상병리사는 “앞으로도 수혈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수혈검사 및 헌혈실 운영 활동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